

썰렁했던 순천 장천동 새단장... 활기 되찾는다

터미널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년 마무리...사업 시작 7년만에 도심 정원·특화거리 등 조성...28일까지 창업 컨설팅 신청자 모집

순천 장천동 터미널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내년 완공을 앞두고 옛 도심 중심부의 명성을 회복할 준비를 하고 있다.

24일 순천시에 따르면 종합버스터미널을 둘러싼 장천·남제동 20만966㎡ 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난 2018년 시작한 이후 7년 만인 내년에 완공을 앞두고 있다.

사업 이름은 '꿈미락(夢味樂)이 있는 청사들'이다. 유동인구가 줄고 낡은 건물과 공실률이 늘어나는 상권 회복을 위해 국비 150억원 등 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해 도시재생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인근에 2025년 지상 6층 규모로 완공되는 시청 신청사와 어울려 옛 도심 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현 청사의 동쪽으로 확장 건립되는 신청사는 사업비 2090억원 들어 연면적 4만7048㎡ 규모로 건

립될 예정이다.

장천동 터미널 인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도시공간 혁신'과 '주민자치 공동체 회복', '일자리 창출 연계 경제 활성화' 등 3개 단위 사업으로 나뉜다. 세부적으로는 순천의 특성을 담은 도심 정원과 특화 거리를 만들고, 마을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스마트 시범 거리를 조성한다. 청년 주택을 건립하고 친환경 주택개선(그린 리모델링)을 벌여 주거 복지도 높일 예정이다.

옛 도심 유동인구와 상주인구를 늘리기 위해 장기체류형 숙소 개선사업을 벌이고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주차장을 마련한다.

골목 단위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거점 시설인 '꿈미락센터'를 조성하고, 주민 역량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순천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하나로 터미널 인근에 순천 특화 지원사업을 벌일 대안상기를 확보했다.

순천시 장천현장지원센터는 오는 28일까지 이곳에서 창업의 꿈을 이룰 '창업자 경영 컨설팅 및 교류프로그램' 신청자 15팀을 모집한다.

개업 5년 이내로, 도시재생 구역인 터미널 일원 사업지에 주소를 뒀거나 생활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창업자들은 2차례에 걸쳐 경영 상담을 받고 소셜 미디어(SNS) 홍보 지원을 받는다. 앞으로 창업 관련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우선 선발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프로그램에 최종 선정된 창업자는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매달 한 번씩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교육에서는 순천시 도시공간재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 특강, 절세·회계·노무 교육, 소셜미디어 홍보 조언 등을 듣는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시 장천현장지원센터 직원들이 지난 19일 장천동 종합버스터미널 인근 상인들을 대상으로 '창업자 경영컨설팅 및 교류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광양역사문화관~도립미술관 일대 문화벨트 연결

남도특화경관사업 선정...남만 밤거리 5개소 조성·간판 정비 등 추진

광양시가 전남도 주관 '2023년 남도특화경관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광양역사문화관~전남도립미술관 일원 특화경관 조성에 나선다.

남도특화경관 조성사업은 매력적인 경관요소를 발굴해 경쟁력 있는 지역 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정재봉 작가의 거리, 인사리공원, 유당공원, 갑배오의 집, 광양예술창고 등 광양역사문화

관~전남도립미술관 일원에 흩어져 있는 문화요소들을 문화벨트로 연결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경관조성 계획을 수립했다.

서류심사와 현지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총사업비 10억원(도비 3억, 시비 7억)을 투입해 2024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골목미술관 조성사업(1300m)과 남만이 있는 밤거리 조성 5개소, 빈집을 활용한 작은미술

관 조성 1개소, 간판정비 사업 등을 추진해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예비문화도시사업과 연계해 광양시가 문화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큰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김민영 광양시 도시재생과장은 "남도 특화경관 조성사업은 대상지 주변 다양한 문화 요소와 지난해 완료된 광양읍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해 새로운 명소를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곡성 농어촌 로봇 교육 활성화

곡성미래교육재단, 국비 3000만원 확보 찾아가는 교육 등 진행

곡성미래교육재단(이사장 이상철)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주관 '2023년 로봇창의교육사업' 공모에 선정, 국비 3000만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로봇창의교육이 미비한 농어촌 지역에 로봇 교육을 활성화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재단은 초등학교 5개교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맞춤형 로봇 프로그램 2종을 교육하며 로봇 창의교실 운영 모델을 개발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Strat Up'이란 주제로 학교로 찾아

가는 교육을 진행하며 추후 학교와 재단, 민간을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창의교육 협력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곡성미래교육재단 관계자는 "곡성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단순히 로봇을 가지고 노는 일회성 체험이 아닌 장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관내 거점별 4차 산업 교육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4차 산업혁명 로봇 창의 교실 모델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보성에서 공예 관람·명상하며 '쉼' 찾기

'보성세계차엑스포' 기간 29일~5월 7일 한국차 문화공원 지역 작가 4명 작품 선보여

보성군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023 보성세계차엑스포' 기간 동안 한국차 문화공원 내 품평관에서 차 명상과 공예가 만나는 '숨, 쉬다' 전시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 '숨, 쉬다'는 숨 한번 제대로 쉴 수 없는 각박한 세상 속에서 '숨'을 통해 '쉼'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온전한 나로서 가치의 소중함을 일깨우고자 기획됐다.

차 명상 전시는 보성에서 활동하는 지역 작가 4명(홍성일, 이혜진, 정은실, 천원진)과 제주 취다선 명상팀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홍성일 작가는 제주도의 흙으로 땅의 생명력을 불어넣은 다란과 다기를 자연스러운 질감으로 표현한다.

이혜진 작가는 겨울의 길목에 남겨져 있는 식물들을 흙으로 새겨 이야기를 담아낸다.

정은실 작가는 삶과 무한 반복하는 일상을 삼베 실과 뽕이불로 만든 직조작품을 표현한다.

천원진 작가는 나무가 견뎌낸 축적된 시간과 작가의 손길이 더해져 삶의 세월을 예술로 승화시킨 찻상을 선보인다.

홍성일 작가는 "타인에게 비치는 가공된 내가 아닌 소소하지만 순수하게 빛나는 자신을 스스로 찾아가는 여정에 함께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제주 취다선 차 명상팀은 "내면을 향한 여정"을 안내하는 사람들로 전시 기간 동안 매일 오전, 오후 2회씩 명상 체험을 진행한다.



차(茶) 명상과 공예가 만나는 '숨, 쉬다' 전시. <보성군 제공>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여수 시정·정책 지원 자문위 출범

분야별 전문인 20명 구성...분기별 정기회의 열어 자문

여수시의 민선 8기 시정과 정책을 지원하는 '여수시 정책기획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위원회는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제1차 정책기획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올해 자문위원회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위원장인 정기명 시장을 비롯한 정책기획자문위원 20명이 참석해 위촉장 수여와 위원회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책기획자문위원회는 언론, 법률, 교육, 문화, 여성, 복지, 노동, 산업, 예술, 관광 등 각계각층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정기명 여수시장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시는 시정 운영에 다양한 시각과 전문적 의견을 담기 위해 2019년부터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민선 6기 100인 시민위원회(100명), 민선 7기

미래발전위원회(40명)에 이어 올해는 20명의 소규모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위원들은 첫 회의에서 매 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해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적시에 다양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민선 8기 여수시는 '소통과 화합'을 핵심기조로 삼고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칠 것"이라며 "위원들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고흥 '이동빨래방' 서비스 확대

차량 추가 확보 어르신 침구도 세탁...마을 순회 수거·배달 윈스톱

고흥군이 찾아가는 행복나눔 이동빨래방 기능을 확대했다.

2013년부터 시작한 이동빨래방 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항인 '어르신 침구류 공공 세탁서비스 사업'으로 확대해 이동빨래방 차량을 2대로 추가 확보했다. 인력을 배치해 마을을 순회하며 세탁물 수거부터 배달까지 윈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매년 초 16개 읍면사무소에서 대상자 신청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올해부터는 군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달려가는 친절서비스로 호응을 얻고 있다.

이동빨래방은 지난 21일 고흥읍 LH임대아파트 단지를 찾아 30가구를 상대로 세탁서비스를 진행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이동빨래방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취약계층 안부 확인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올해는 344개 마을 2752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복나눔 이동빨래방. <고흥군 제공>

이동빨래방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여수시립미술관, 예술작품 공개 수집

다음달 4일까지 접수

여수시가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해 미술사적·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작품을 공개 수집한다.

여수시는 현재 건립 추진 중인 여수시립미술관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소장품을 수집했다.

올해 수집 대상은 여수지역 미술사 정립을 위한 주요작품과 평화·인권의 가치를 담고 있는 작품 가운데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는 작품이다.

공모는 작가를 비롯해 개인 소장가, 화랑, 법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 가능한 작품 수는 매도의 경우 최대 2점 이내, 기증의 경우는 제한이 없다.

희망자는 오는 5월4일까지 시 문화유산과로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신청이 유효하다.

시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중으로 작품을 최종 선정해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문화유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건강·안녕 기원" 지리산 봉천산신제 봉행

대한불교조계종 19교구 분사 지리산 대화엄사가 지난 22일 구례군 지리산 내 암자인 구충암에서 지리산 봉천산신제를 봉행했다.

산신제는 민족정기 고양과 모든 백성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전통 제례 의식이다.

예로부터 묘향산의 상악단, 계룡산 신원사 중악단과 지리산 봉천암 산신단을 하악단이라 칭했다.

화엄사 산신제에는 고려 초까지는 노고단에서 지내다가 일제강점기 때 중단됐고 광복 이후에는 화엄사, 봉천암 위쪽에서 해마다 봉행됐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지리산의 맑고 청아한 기운이 모든 국민들에게 전해져서 삶의 청량제가 되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